

도 중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프로그램 투입의 단계별 전략(설정 기준)과 기대효과의 관계를 보면, 그동안 원예활동에서는 소통과 공감의 바로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예활동을 통해 참여자는 소통이 증가하고 생동감(여유)이 증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참여자(학생)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긴장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는 MZ 중학교의 사례, 선행 연구보고사례를 비추어 볼 때 소통증가가 바로 공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추정할 있다. 관계가 안정되면서(친숙해지면서) 공격성이 완화되고 사회적 협동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기조절을 배우는 단계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단계별 투입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개념적으로 모형화하여 그림 2-16과 같이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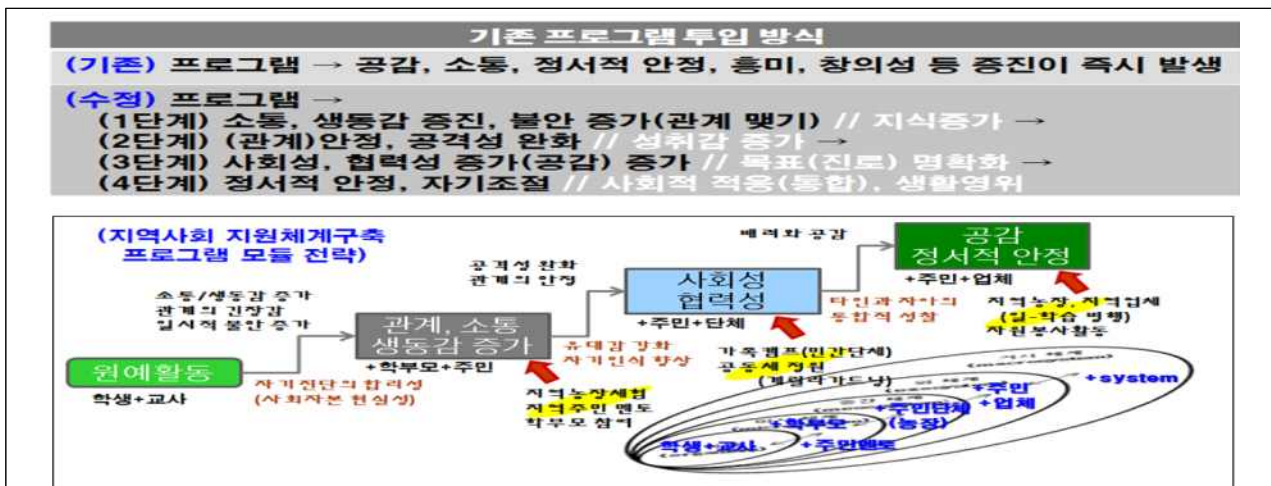


그림 2-16.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프로그램 모듈 개발 전략

마.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014년의 조사에서 텃밭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연수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교사의 텃밭활동 운영에 따른 문제와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대상 학교에 참여하는 교사,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Semi-program(13시간) 형식의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텃밭활동 및 원예치유에 대한 교사연수 요구 수용, 향후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교사연수용 프로그램 개발에 있다. 주요 과목은 텃밭 디자인과 주요작물 관리, 텃밭에 자주 나타나는 병해충 관리 방법, 텃밭 활용하기-프로그램 활용사례 및 학습교구 다루기, 텃밭 활동을 통한 변화 측정방법, 텃밭조성 및 작물식재 실습 등 7과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시기는 2015.8.11.~12(2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익산 농촌교육농장에서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시간은 교사연수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학점(15시간)용 21시간으로 구성하였으나 참여자 평가 후 16시간(2일)으로 변경하였다.

평가 방법은 집단토의기법 및 참여 후 질적 평가를 진행하였고, 토의를 통하여 수정하였다. 평가요소는 교육과정 운영, 연수기간, 강사의 적합성, 전문성 제고, 교육과정 수준 만족도 등이었으며, 특히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평가 및 현장적용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 교사 4, 민간전문가 5, 농촌지도사 4, 연구원 등이다.